

종교 강요하는 것은 순한 토끼에게 육식시킴과 같아

달라이라마, 멕시코서 9월 9~11일 인류애의 아리아 설법 열어

“달라이라마. 멕시코 때 아모!(멕시코는 달라이라마를 사랑해요!, Dalai Lama. Mexico Te amo!).”

9월 11일, 멕시코시티 아술스타디움(Estadio Azul)에 4만여 관객의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대다수 토착화된 로마 가톨릭 신앙을 지닌 이들에게 주일인 일요일, 교회와 아닌 축구 경기장을 찾게 한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축구를 열광하는 멕시코인이지만 이 날은 경기 관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푸른 잔디가 깔린 경기장을 향했다.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덴진가초, 76세)의 세 번째 멕시코 방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은 멕시코티베트 하우스(Casa Tibet Mexico)와 리차드기어(영화배우) 재단 주관으로 성립된 9월 9~11일 이뤄졌다. 달라이라마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거쳐 브라질로 이어지는 미 대륙 순방을 마치고 19일 다람살라 티베트중앙행정부로 돌아왔다. 고향에 왼쪽 무릎 관절 통증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는 씀 없이 길 위의 설법을 이어갔다. 지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칼라차크라 법회’ 이후 미국 9·11테러와 9월 16일 멕시코 독립기념일에 맞춰 지구 평화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달라이라마는 그의 나이 16세에 자유를 잃은 이후 24세에 조국 티베트를 잃었다. 티베트의 망명 역사 50년이 넘는 현재, 멕시코의 한인 이민사도 어느덧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제포토(지금의 인턴항)에서 영국 선박에 오를 멕시코 한인들이 겪은 선인장 농장에서의 고역,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일제 강점기 당시 1919년 9월 11일 수립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며 조국의 독립을 발원했던 눈물의 역사다.

9월 9일, 멕시코 몬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회담: 인간의 존엄성과 합법성(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Values and Rule of Law) 기조연설에서 달라이라마는 “이타주의와 내면의 가치가 많은 관심을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달라이라마는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과 비공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40여 분간 진행된 만남 동안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는 1500년 고대문명의 인류학적 역사를 지녔으나 스페인의 300년 식민지 처하를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화했다.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두

에게 열린 국가다”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분리주의자의 초청으로 양국관계가 훼손됐다”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달라이라마의 멕시코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멕시코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직접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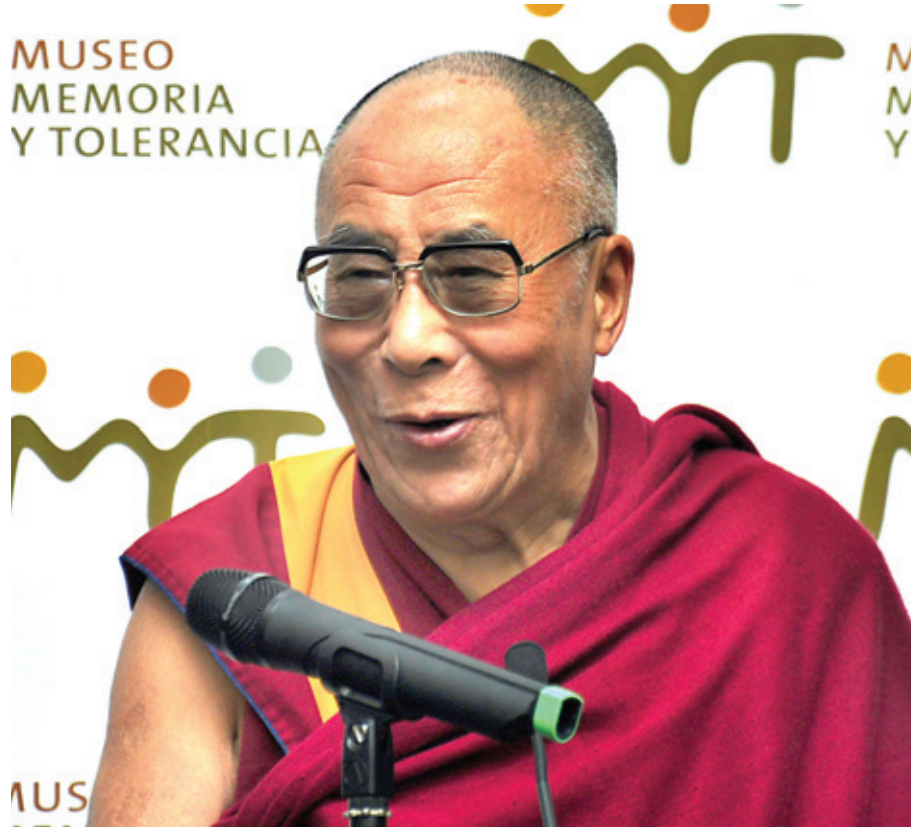
9월 10일,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극장(Teatro Metropolitan)에서 세계 랑리 탐빠(Geshe Langri Thangpa)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덟 편의 시: 이타주의와 타협을 통한 조화의 구축(Eight Verses of Training the Mind): building Harmony Through Altruism and Compassion’을 주제로 법회를 가졌다. 법회를 열어, 달라이라마는 불교의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먼저 설명으로서, 불교가 지닌 타 종교와의 공통점과 차별된 점을 먼저 밝혔다. 다음은 이날 달라이라마 법문의 요지이다.

이번 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이타적인 의지를 실천코자 한다면 오늘 법문의 저본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덟 편의 시’가 좋은 지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한 손에 무상(無常)이라는 공(空)의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이타심이라는 활을 들고서 번뇌의 적들과 대결하는 무사의 자세를 닮습니다.

이 시 속에는 모든 중생을 자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티베트불교는 인도 나란다승원의 불교 수행 전통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대승불교의 보물 창고입니다. 대승불교 수행자의 경우, 이타적인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보살이 되기 위한입니다. 모든 열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움과 차별 없는 중생의 어머니가 바로 보살입니다. 중생이란 존재하며 흘러가는 세간의 일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종교를 성실하게 살 속에서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불교의 우수성을 전도하기 위해 해 온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에는 고대 문명의 보고가 있고, 스페인 문화가 정착해 오늘날 독자적인 종교와 신앙의 형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때 몽골 불자들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는 역사적으로 티베트불교가 정착돼 있었



모든 중생은 소중한 존재
종교와 신앙도 이와 같다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단들이 토착 종교를 비난하며 심지어 교회에 참석할 때 마다 헌금을 주는 방식으로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는 민족의 숨결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껍데기를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속 깊이 녹아 있는 근원의 정체성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순한 토끼를 육식주의자로 바꾸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생태계의 자연 순환의 고리들이 파괴되고 혼란이 초래되고 말겠지요.

우리는 외행에 지나친 관심을 쏟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유와 행동이 피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침내 종교에는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를 지니는 것과 지니지 않는 것은 순수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지니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심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실천적인 불교도들은 모든 중생이 더불어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발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의 동기는 마음과 실천의 조화로운 속에 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인구 수 만큼 다양한 마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

통으로 추구하는 것은 나름의 행복이라는 가치입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번영의 가치를 논하고자 할 때 그 잣대를 어디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뒤야 할까요. 종교가 어디에서 왔으며 모든 인류의 문화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종교는 길잡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을 다시 정의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사유하십시오.

9월 11일,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술스타디움(Estadio Azul)에서 ‘고난의 시기에 행복 찾기(Finding Happiness in Troubled Times)’를 주제로 공개 법회를 가졌다. 달라이라마는 멕시코인의 얼굴 생김새가 티베트인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유머로 법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법문의 요지이다.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일합니다. 100% 동일한 것은 육망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민족과 얼굴의 생김새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형태 자체로서 모두 평등합니다.



멕시코 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 마련된 법석



이날 법회에는 4만여 멕시코인이 참석해 티베트 독립을 지지했다.

종교는 민족의 숨결과 같아
피속 깊은 정체성은 못바꿔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건 나는 언제나 공부합니다. 나와 다른 삶의 형태와 지식들은 무한한 생각의 영역으로 나를 확장시켜 줍니다. 지구는 한정돼 있지만 그곳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두뇌 활동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현대과학과 신경정신이 교류하면서 고정된 관념을 꾸준히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꾸준히 변화하고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교도입니다. 이곳에는 가톨릭, 수피,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믿음을 지닌 이들이 모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별이 있을 뿐 모두 사랑과 자비의 도구를 통해 공통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20세기를 근거로 우리는 21세기의 오늘을 누리며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의적으로 당신의 이기적인 일방적 행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착취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현재의 내가 지향해야 할 삶은 전방의 피라미드 최상의 꼭지점과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있을 뿐 절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형태 자체로서 모두 평등합니다.

종교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편적인 대화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다가서는 연민입니다. 오늘날까지 끊임 없이 지속되는 수많은 테러와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한 인간애의 중심에 지극히 이기적인 ‘나’가 깊숙한 심지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위 앞에 ‘나’가 선행되어 사유되면 일방적인 폭력으로 작용되어 타인에게 본의 아닌 아픔을 줍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과 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뜻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일흔이 넘는 노인이지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이 앞섭니다. 아깝없는 사랑으로 돌봐준 유일한 분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유와 행동에는 우선된 ‘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조화롭게 공유하며 살아야 하는 필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해답을 구한다면, 바로 ‘나’를 ‘우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고 좁은 곳만 비추는 등잔불에서 높은 불드의 더욱 밝고 등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나’가 있음을 알고 삶에서 실천으로서 행할 수 있다면, ‘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이루만지는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멕시코시티=기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집안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天氣福

현재의 시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날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정리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마음 다스리니 고통 오고 감 없네

달라이라마, 동남아시아 불자 요청으로 <입보리행론> 법문

달라이라마 대종의 강증을 달래는 달라이라마의 법회가 8월 30일~9월 1일 다람살라 풀라카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무슬림을 주된 신앙으로 삼는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찾아온 불자들의 요청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법회에는 25개 나라 외국인을 포함한 6000여 정중이 관심을 보였다. 9월 중순이면 스웨덴 사업을 위해 인도 각지로 떠나는 티베트인들도 이번 법회에 대거 참여했다.

법문은 7~8세기 인도 나란다승원 출신의 중관학자 산티데바가 저술한 <입보리행론> 전체 10장 가운데 '보리심공덕 찬탄품' '죄업 참회품' '보리심 전지품' '보리심 불방일품' '호계 정지품' 등 5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달라이라마는 법회를 열며 "산티데바는 보리심 수행을 최고로 여기고 그 공덕을 찬양한 분이다. 자신의 마음에 긍정의 숨을 들이겠다는 선한 동기로서 이번 법회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달라이라마의 법문 요지이다.

목적 없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스스로 수행을 하는 바에 세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마음의 힘입니다. 선업은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고 두터운 번뇌의 근원이 무지만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이래의 뿌리로 뻗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외부의 물질이 지닌 해악을 바르게 알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리라 쉽지 않습니다. 삼보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약이 멸한다면 일찍이 세상은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닌 개개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선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외부의 강압만 없으면 결코 근본적인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한역본에는 '오온개공(五蘊皆空)'으로 역경된 것이 티베트본에는 '오온 초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가설의 바탕이 실체를 찾았을 때는 그 초차도 무자성하다'는 것이 산스크리트본의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실상의 현실을 바로 알아 변화를 분석하며 받아들이라고 일깨웁니다.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미세한 의식을 해아리라고 합니다. 실상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행위를 예로 들었을 때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행복을 느끼는 자신이 주체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 실체를 절대 규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름 붙여진 것일 뿐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실상의 '나'입니다. 즉 불교는 연기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물질적 발전의 시기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동시에 내면의 평화 역시도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이 마음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보편성에 입각한 도덕과 정의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이타심과 연민 즉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데 이르렀습니다.

행복을 구하는 마음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동기입니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음에는 특별한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대승보살의 자량도에 입문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善業뿐

지난날 즐겨왔던 향락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승사자에게 붙잡혔을 때 오직 공덕만이 스스로를 지켜줄 것인데 나는 이 역시도 쌓지 못 하였네

처음 붓다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신 것은 근본 바탕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붓다는 자생이 아닌 범부의 상태에서 도의 과정을 거쳐 성불을 이룬 분입니다. 스스로 붓다가 되는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불의 과정은 '아제야제바라야제바 라승야제'와 같은 차체에 순응합니다. 원인도 결과에 의지한 것입니다.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이 성립됩니다.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일상에서 선한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래로 번뇌에 익숙하도록 습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몸이란 업과 번뇌로 인연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몸은 의식과 연관 지어져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고자합니다. 더욱이 죽음에 이르러서는 감각이 힘든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현재부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임종 직전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란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길들이기 시작해야만 비로소 내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 대상과 그 전의 의식인 등무관연이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



달라이라마가 다람살라 대종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는 모습

선업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몸이란 업과 번뇌로 인연한 것

습관 들여야 선한 마음 키우게 돼

지혜와 용기 갖추어야 보리심 발현

또 하나의 의식을 발생시킵니다. 근치인을 생각할 때 가장 미세한 의식이 전생과 후생을 성립케 합니다. 인간의 몸이 무너지는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존재하지만 미세의 식만은 지속됩니다.

대승의 입문, 보리심을 일깨움

보리심이란 정법의 우유에서 뽑아낸 버터의 정수와 같습니다. 보살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아집이 적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이타심이 큼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타심보다 이기심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로서 있다고 여기고 내가 진실로서 존재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만과 이기심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지닌 이라면 오체투지로서 참회할 수 있습니다. 진언 또는 스승을 관상함으로써도 참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탁월한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켜 이타적 실천으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정진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깨달음의 씨앗인 선업을 잘 키워 해탈의 나무로 키워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어둠의 무명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낸 수행자는 길을 잃은 이들의 안내자가 되고 의지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용수보살께서 <보만론>에 밝힌 바와 같이,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서 아낌없이 베푸는 자가 되도록 하소서'라는 구절처럼 오로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서 국한됨 없이 포용하는 이가 되십시오.

스승이 묻습니다. "그대는 보살인가?" 보살이 된다는 것은 보리심을 마음에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추고 용기를 지닌 자만이 보리심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보살계를 마음에 수지함으로서 스스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장님이 쓰레기 더미에서 마치 보물을 얻은 것과 같으니, 보리심이 생겨났음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리심은 오로지 타인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로서 상호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윤회의 길에서 해마다 지친 중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이 지닌 오온이 윤회를 이끽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 오온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보리심을 낸 것은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달이 떠오른 것과 같습니다. 주의해서 상처를 살펴듯 경계 없이 마음의 상처를 돌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니 고통이 오고 간곳이 없음을 여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윤회의 길을 떠도는 중생이 안락을 바라는 바와 같이 중생의 여행에 최상의 만족을 주는 길은 보리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계를 수지하고 항상 보리심을 관상함으로써 마음의 허물을 없애는 것을 거듭 사유하십시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現 달라이라마 90세 되면 포스트 달라이라마 결정한다

9월 24일, 달라이라마 14장의 서신 통해 환생 방안 밝혀

15대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도움 단기가 시작됐다.

14대 달라이라마(텐진가초, 76)는 9월 22일부터 3일간 다람살라 소재 수리 야호텔에서 열린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 23일 참석, 다음날인 24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9월 22일 삼동린포체 주재로 진행된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는 히말라야 불교(Himalayan Buddhist regions)와 칼막(Kalmykia)의 불교 지도자를 비롯해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지역에서도 참석했다.

오랜 기간 법정 분쟁중인 까규파에서는 공식적인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는 달라이라마에게 공식 승인 받은 17대 까르마빠(우젠틴레도제)와 150년 이상 티베트 정부와 갈등을 앓고 있는 샤프마빠 내의 까르마빠 그리고 싯푸린포체의 삼자 대면이 다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라마 환생 제도는 1642년 이래 티베트 겔룩빠에서 전승돼 온 정치적·종교적 지도자 책봉 정책이다. 겔룩빠가 14대로 이어지는 환생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면 까규는 17대, 샤프마빠는 그 원조격인 20대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티베트불교의 송고한 불교 전통이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 마지막 날 14장의 구체적인 서신을 공시하고,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범령단(The Dalai Lama's Gaden Phodrang Trust, The Dalai Lama's Institution)을 조직해 15대 달라이라마 선정 여부를 준비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날 중국정부 외교부 대변인 홍

레이(Hong Lei)는 중앙티베트중앙행정부의 성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로서 현재 외국으로 망명한 달라이라마가 중국의 종교 문제와 현황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달라이라마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준하지 않을 시엔 모두 무효이다. 후대 달라이라마 역시 중국정부의 종교법에 따라 선정할 문제다"라고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 회의에서 종교·정치 지도자 책봉 전통 중국정부 "종교법 따르라" 하자 티베트 승려 소신공양 잇따라

이런 여파로 9월 26일 중국 서장치구(티베트)의 키르티사원(Kirti Monastery)에서는 두 명의 18세 젊은 학생이 '달라이라마의 장수(long live the Dalai Lama)'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며 소신공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 '티베트'와 같은 인터넷 검색어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24일 달라이라마의 후대 선정과 관련한 성명 발표 직후 일어난 일로서 국제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내에서 티베트 승려의 소신공양은 올해 3월 이후 현재 네 번째다.

인도 다람살라=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14대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불교 지도자회의에서 차기 달라이라마 선정을 위한 범령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빠지고 함께 배출되기에 문맥(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회복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반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종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감성적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웃나무 진액 참웃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웃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웃에도 고품질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웃물을 만들었습니다.

▶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웃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웃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